

경항모함 건조, 미사일 전력 증강 '국방중기 계획' 발표

한국 군이 단거리 미사일을 더욱 보강하고 요격망까지 확충해 북한에 대한 전력 우위를 굳히나가기로 했다. 또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 수송함도 건조하기로 했다.



▲ 한국 군이 보유한 가장 큰 함정 중 하나인 마라도함(1만9,000t급)의 항해 모습.

14일 'ytv'에 따르면 한국 군은 내년부터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사실상의 '경항공모함' 개념 설계에 들어간다. 이는 3만 톤 규모의 차세대 대형수송함 한국 내 건조 사업으로 이 수송함은 F-35B 10여대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경항모는 한국 군이 보유한 가장 큰 함정인 독도함과 마라도함(1만9,000t급)의 1.5배 크기로, 2030년대 초반에 전력화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전망했다.

군 관계자는 "항후 설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형 수송함은 전투기뿐 아니라 헬기와 전차, 장갑차, 각종 장비 등을 싣기 때문에 F-35B의 탑재 대수는 다소 유동적"이라며 "다른 장비를 싣지 않고 F-35B 위주로만 운용하면 최대 16대를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함정은 설계에 따라 F-35B 외에도 해병대 병력 3,000여명, 상륙장갑차 20여대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발표한 경항모는 일본이 2023년으로 계획 중인 이즈모급(2만7,000t급) 경항모보다 크다.

군은 여기에 더해 사거리 800km의 현

무-2C와 탄두 무게 2톤짜리 현무-4까지 보강할 계획이다. 또, 20km 미만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피트리어(PAC-3) 성능 개량, 중층인 40km까지의 M-Sam과 60-70km 상층 미사일 방어 L-Sam 개발 등 북한 미사일 요격망까지 갖춰 양적 질적으로 북한에 앞선 단거리 미사일 전력의 우위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군사정찰위성 5기의 전력화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3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공중에서 폭파하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함으로써 상대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기파(EMP)탄 개발, 합동화력함 등도 건조하기로 했다. 병사 월급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된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 책정한 소요재원은 290조5,000억원으로, 지난 1월 발표한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270조7,000억원)보다 19조 8,000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취업자 수 증가했지만 제조업은 여전히 '찬바람'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0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1년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그러나 제조업 취업자는 16개월 연속 감소하고 30대와 40대 취업자도 줄어 고용 상황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경향신문'이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38만 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만 9,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5월 이후 석 달 연속 20만명을 넘겼다.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률(15세 이상)은 61.5%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청년(15~29세)고용률은 44.1%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으며 7월 기준 2007년 이후 가장 높다.

50·60대 취업자가 크게 늘면서 고용 회복 흐름을 이끌었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7만3,000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1.3%포인트 높아졌다. 취업자 증가 규모와 고용률 증가폭이 전 연령대 통틀어 가장 높다.

반면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와 30대 취업자가 각각 17만9,000명, 2만3,000명 감소했다. 40대는 고용률도 0.8%포인트 줄었다. 고용률이 감소한

연령대는 40대가 유일했다.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제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고용지표에도 드러났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9만7,000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3월 이후 16개월 연속 감소세이다. 특히 전달(-6만6,000명)에 비해 감소폭이 더 커졌다. 조선·자동차업종의 고용은 개선됐지만 반도체가 속해 있는 전자·통신장비에서 부진했다. 반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4만6,000명 증가했고, 음식숙박업은 6개월 연속 증가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 근로자는 43만8,000명 늘어 지난해 1월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하지만 임시직 근로자는 8만7,000명이 감소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제조업 부진이 주로 40대와 임시직 고용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수출규제는 지난달 고용지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60대와 20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실업률도 높아졌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09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8,000명 많아졌다. 7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가장 많다. 실업률은 3.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